

## 『黃帝素問大要·題誌』에 대한 研究

김창건·윤창열\*

### 關於黃帝素問大要題誌的研究

金昌建·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歷代諸家以多種依據, 對『素問』的著者是否黃帝進行了論述. 李圭峻以兩個論點為依據, 判斷了『素問』的著者. 根據孔子認為黃帝通達生死之原因和草木之味說, 以及孔安國認為存在伏羲, 神農, 黃帝等的三墳書之說, 判斷為三墳書中所說的黃帝之著作, 即為現流傳之『素問』. 李圭峻無師獨學者, 并具有果敢地對儒教之經典, 進行刪定的主觀性較強的人. 因此, 其閱讀『素問』後認為, 『素問』之內容深奧而精辟, 把天地陰陽之根源及死生由命的緣故和昆蟲草木的隱微等都進行論述, 故判斷為此非聖賢所能為之.

但是, 其亦認為『素問』的整個內容, 並不是黃帝的之全作. 認為經過夏殷周三代, 其內容存在刪改及缺漏引起的前後之矛盾之處, 而且漢代以後亦有錯簡及訛傳. 尤其經王冰對『素問』進行整理, 以及高保衡等的重新校正, 其根本才被分辨出來.

見到諸多醫者不學『素問』, 且以『素問』為依據主張錯誤觀點, 導致生命之寃亡. 因此, 如同刪定儒教等經典一樣, 對醫學之經典『素問』進行了刪定, 并稱為『素問大要』.

Key words : 『素問大要·題誌』, 著者, 三墳書, 李圭峻.

### I. 서론

『黃帝內經』은 한의학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는 서적이다. 한의학 발전 과정에서 나온 온갖 성과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黃帝內經』 이후의 의학사는 모두 『黃帝內經』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대 의가들은 의학상의 질문과 답을 모두 『黃帝內經』에서 찾았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의학 유과들이 파생돼 나오기도 했다. 장중경의 『傷寒論』이 그러하고, 독자적인 의학 관점에서 유과를 창시한 금원사대가가 그러하다.

이러한 『黃帝內經』에 대하여 역대 의가들은 각종 주석서와 요약서를 펴내 의학의 지침을 삼고자 했

다. 수나라 揚上善의 『黃帝內經太素』에서부터 청나라 黃元御의 『素靈微蘊』에 이르기까지 약 60여 종의 『黃帝內經』 주석서와 해설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黃帝內經』에 대한 각종 연구서와 논문들이 즐비하다.

『黃帝內經』은 이미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sup>1)</sup> 이후 의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학사에는 약 1500여 년 동안 『黃帝內經』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있다면 石谷 李圭峻의 『素問大要』가 유일하다<sup>2)</sup>.

石谷 李圭峻은 조선말 1855년(哲宗 6년)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장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유학을 독학으로 연구하여 각종 경전들을 刪正하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cy@dju.ac.kr  
· 채택일 : 2006년 12월 10일

1)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p. 30.  
2) 김중환,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17 No.4, 2004, p. 57.

였다. 『六經』(毛詩, 尙書, 春秋, 周禮, 儀禮) 26冊, 『經髓三篇』(大學, 中庸, 禮運) 1冊, 『典禮』1책, 『論語』3冊, 『孝經』1冊, 『唐宋古詩』1책, 『後千字』1冊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西曆에 대하여 논한 『浦上奇聞』1冊, 조선 성리학의 당과성에 대해 논한 『石谷心書』1冊, 수학을 논한 『九章要訣』1책이 있으며, 『神敎術世文』1冊과 『石谷散稿』2冊이 있다.

그는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黃帝內經』을 刪正한 『素問大要』1冊, 『東醫寶鑑』을 정리한 『醫鑑重磨』3冊, 『神農本草經』을 정리한 『本草』2冊을 남겼다<sup>3)</sup>. 또한 자신의 의학 이론으로 『素問大要』 말미에 「素問附設」5편을 남겼는데, 「扶陽論」, 「氣血論」, 「腎有兩藏辨」, 「脈解」, 「注下解」<sup>4)</sup>가 그것이다.

그의 의학 이론인 扶陽論은 한국의학사에서 李濟馬의 四象醫學과 더불어 독자적인 의학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지만<sup>5)</sup>, 그가 남긴 『素問大要』는 그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素問大要』는 기존의 『黃帝內經』주해서나 해설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가 유가 경전을 刪正한 것처럼 『黃帝內經』을 刪正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한은 『素問大要』를 校註書<sup>6)</sup>라고 하지만 刪正書로 보는데 옳겠다. 『黃帝內經』의 편제를 새롭게 하고, 문구를 고쳐서, 『素問』을 복구했다고 이규준이 말했는데 이를 校註書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의학사를 통틀어 『黃帝內經』을 刪正한 책은 없기에 이는 유일한 刪正書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扶陽論은 독자적인 의학 이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리어 『素問大要』는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쩌면 그의 의학 이론인 扶陽論 때문에 『素問大要』가 평가받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그것은 관련 연구 논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李圭峻 개인에 대해서는 김적의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sup>7)</sup>이 있고, 그의 의학 이론인 扶

陽論에 대해서는 황원덕의 「석곡 이규준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sup>8)</sup>과 권오민의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sup>9)</sup>가 있지만, 『素問大要』에 대해서는 김종한의 「李圭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sup>10)</sup>과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sup>11)</sup>이 있을 뿐인데, 두 논문은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에 한 편의 논문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에 필자는 『素問大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1장에서는 「黃帝素問大要題誌」의 원문을 신고, 현토하고 해석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黃帝內經』의 저작자에 대한 諸家の 의견과 이규준의 의견을 비교하여 그가 『素問大要』를 저작한 동기를 살펴보았다.

## II. 본론

「黃帝素問大要題誌」의 원문 현토와 해석

### 黃帝素問大要題誌

素問은 誰人所作이오 先儒有云<sup>12)</sup> 戰國時人所作이라하니 其果然乎아 余觀<sup>13)</sup> 夫素問之爲書也은 上窮天地陰陽之原하고 中通死生幽明之故하고 下察昆蟲草木之微하여 靡不底極하니 非神聖生知면其孰能與於此리오 孔子曰黃帝生而神靈하시고 弱而能言하시고 達死生之理하시고 知草木之味라하시니 其素問之謂乎아 然이나 今觀<sup>14)</sup> 其文支하고 其辭夸하여 有衰世之體하니 其果戰國時人所爲乎라 夫醫藥者은 亦聖人開物成務之功이오 保民贊化之事이니 則其宗旨大綱은 蓋出於黃帝與岐伯이 論理天人而傳

3)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p. 463.

4) 李圭峻, 素問大要, 서울, 大星醫學社, 1999, pp. 233-246.

5) 권오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p. 1.

6) 김종한,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醫學原典學會誌 Vol.17 No.4, 2004, p. 57.

7) 김적,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79.

8)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 大韓醫學原典學會誌 Vol.12 No.2, 1999.

9) 권오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10) 김종한, 李圭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 大韓醫學原典學會誌 Vol.5 No.-, 1991.

11) 김종한,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醫學原典學會誌 Vol.17 No.4, 2004.

受나至周季하여 乃演益張皇之也라 故其中亦多有前後矛盾者는 乃述者之自爲壽張이니 是豈黃帝之終始乎아 楊子雲曰黃帝는 託也라 昔者妣氏治水土而巫步多禹하고 扁鵲盧人而醫多盧하니 夫欲售僞者는 必假眞이니 禹乎아 盧乎아 終始乎아 則漢書藝文誌所載黃帝內經十八卷은 非盡黃帝書也라 孔安國序尚書曰伏羲神農黃帝之書를 是謂三墳이니 言大道也라하니 夫黃帝之書는 本與易으로 相表裏라 歷乎三代에 列之天官하여 及其演益而大道反隱이라 自漢以下로 委諸方技하고 置之賤工하여 自好之士가 不肯顧焉이라 於是에 方士歷乎하여 簡有錯하고 字有訛하여 有不可讀者를 唐太僕王冰이 改補而註次之하고 宋博士高保衡等이 裒集而校正之나 猶未能辨其僞而覆其本라 後之人不能理會하여 遂廢不讀焉라 今世所行者는 惟金人劉朱之私書也니 劉完素金人號河間朱震亨元人號丹溪 其書不根經旨하고 不原天機하여 無稽無驗하니 而黃帝之道遂絕矣라 嗚呼라 黃帝之道絶而天札莫濟하니 此豈非仁人君子之所悶惻者乎아 余當觀素問에 窃有慨然乎心者라니 間有以是書로來問者하여 乃爲之하여 采其大要하고 正其訛舛하여 以與之하니 或截半篇而略之하고 或合三兩而節之하고 或加匡而標之하니 舊凡八十一篇이 今略得二十五篇이라 雖未能盡復其本이나 而大意亦不遠矣라 嗚呼라 是書也는 邇之事親이요 遠之壽民이요 自爲衛身이요 推之治國이니 豈獨醫工之所肄리오 經世之士도 亦不可不知也라 問者因請一言하래 遂記其平日擬議者하여 以附其後云하노라

閱逢執徐春三月哉生魄에 石谷山人李圭暎은 識하노라

『素問』은 누가 지은 것인가. 선대의 유학자들이 “戰國시대 사람이 지었다”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내가 보기에는 『素問』이라는 책이 위로는 天地와 陰陽의 근원을 궁구하고, 가운데로는 死生과 幽明의 연고를 통달하고, 아래로는 곤충과 초목의 은미

함까지 관찰하여 이르지 않는 데가 없으니 神聖의 生而知之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황제께서는 나면서 신령 하였고, 어려서 능히 (하늘의 이치를) 말씀하셨으며, 死生의 이치를 통달하시고, 초목의 味를 아셨다.”<sup>12)</sup>고 하셨으니 이게 『素問』을 말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보기에는 그 문장이 지엽적이고 말에 과장됨이 있어 衰世의 문체가 있으니 과연 戰國시대 사람이 지었다 하겠다.

무릇 의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께서 開物成務하신 공덕이고, 保民贊化하신 사업이니 그 宗旨와 大綱은 황제와 기백께서 天人을 논의하고 전수하신 데서 나왔으나 주나라 말엽에 이르러 늘어나고 더해지면서 尙書에 附屬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앞뒤가 모순된 것이 제법 있는데 그것은 편술한 사람이 스스로 속인 것이지 어찌 황제(와 기백이 논의한 것)의 전부이겠는가.

양자운<sup>13)</sup>이 말하기를 “황제는 假託한 것이다. 예전에 사씨, 곧 우임금이 천하의 홍수를 다스리시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느라 손에는 손톱이 없고 정강이에는 털이 없고 한쪽 몸이 마비되어 한쪽 다리를 끌고 걸었더니) 지금 무당들이 (특별한 걸음걸이로) 우임금의 걸음걸이라 사칭한다. 편작이 노나라 사람이니 지금 의원들이 노나라 사람이라고 사칭한다. 무릇 가짜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짜를 假託한다.”<sup>14)</sup>고 하였으니 『漢書藝文志』에 실린 『黃帝內經』18권 모두가 황제의 글인 것은 아니다(일부만 황제의 글이다).

공안국<sup>15)</sup>이 尚書 序文에서 말하기를 “복희, 신농, 황제의 글을 三墳이라 하였으니 대도를 말하였

12) 王廣謀 句解, 孔子家語, 五帝德第二十三, 木版本, “宰我問黃帝 孔子曰 黃帝生而神靈 弱而能言 (중략) 知幽明之故 達死生存亡之說 播時百穀 嘗味草木”

13) 揚雄을 말한다. 전한 시대의 학자 겸 문인으로 ‘子雲’은 그의 자이다. 전한 시대인 B.C. 35년에 태어나 A.D. 18년에 죽었다.

14) 揚雄 著, 李軌 註, 揚子法言, 重黎卷第十, 木版本.

15) 孔子의 11대손으로 전한 무제 때의 학자. 노나라의 공왕이 공자의 옛집을 헐었을 때 과두문자로 된 『古文尚書』, 『禮記』, 『論語』, 『孝經』이 나왔다. 당시 아무도 이 글을 읽지 못한 것을 今文과 대조, 고증하여 해독하고 주석을 붙였다.

다.”고 하였으니 무릇 황제의 글은 본디 易과 서로 표리가 된다. (그러나) (하은주) 삼대를 거치면서 천관에게 맡긴 것이 늘리고 보태어져 도리어 대도가 숨겨지게 되었다. 한나라 이후로는 여러 方技들과 賤工들에게 맡겨지다 보니 내로라하는 선비들은 보지 않게 되었다. 이때 方士들의 손을 거치면서 착간이 있게 되고 글자가 와전되어 읽을 수 없게 된 것을, 당나라 태복 왕빙이 고치고 보충하고 주를 달고 차례를 잡았고, 송나라 박사 고보형 등이 (여러 판본을) 모아 교정을 하였으나 도리어 가짜를 가려내지 못하고 근본을 덮게 되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책을 보지 않게 되었다. 요즘 유행하는 책은 오직 금나라 사람 유하간과 주단계의 개인 저작이나, 그 책은 『黃帝內經』의 宗旨에 근본하지 않고, 천기에 근원을 두지도 않았으며, 稽考함도 없고 效驗도 없으니 황제의 도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오호라. 황제의 도가 끊어져 병으로 요절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어찌 어진 사람들과 군자들이 우울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일찍이 『素問』을 보고 마음 속으로 개탄하던 차에 더러 이 책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위하여 그 대요를 캐고 틀린 것을 바로 잡아서 주었다. 어떤 편은 반으로 줄여 간략히 하였고, 어떤 편은 두세 편을 모아 절도있게 했고, 어떤 편은 더하고 바로잡아 드러내었더니 전에 총 八十一편이던 것이 이제 묶어 二十五편을 얻게 되었다. 비록 그 근본을 모두 복구하지는 못했지만 그 대의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호라. 이 책은 가까이 사용하면 어버이를 섬기게 되고, 멀리 사용하면 백성을 장수케 하며, 자기에게 사용하면 몸을 건강케 하고, 미루어 멀리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 어찌 의원들만 익힐 책이겠는가. 세상을 경영코자 하는 선비라면 또한 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던 사람들이 한마디 칭하기에 평소에 의논했던 것을 붙여본다.

갑진년(1904년) 삼월 음력 16일에 석곡산인 이 규준이 기록하노라<sup>16)</sup>.

李圭峻은 「素問大要題誌」에서 『素問』은 성인인 황제가 지은 글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후대에 책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착간되고, 와전되어 내용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근거로 후대 사람들이 戰國시대의 글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왕빙, 고보형 등의 『素問』 정리 작업이 도리어 근본을 더욱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렇게 어지러워진 『素問』의 내용 때문에 醫者들이 『素問』을 멀리하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때문에 『素問』의 본의를 전달하기 위해 『素問大要』를 쓰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정리 작업을 하고 보니 『素問』 81편이 25편으로 정리되었음을 밝히고, 醫者뿐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素問』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처럼 李圭峻은 「素問大要題誌」에서 『素問』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에 따른 저작 동기 및 『素問大要』의 편제에 대해 밝혔다.

『素問』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에 대한 諸家와 李圭峻의 견해 비교

#### 諸家の 견해

『素問』의 저작자와 저작 시기에 대한 諸家の 견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황제의 작품이 분명하다는 입장과 황제의 작품은 분명하나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 근본을 잃게 되었다는 입장. 황제의 작품이 아니고 후대에 假託한 것이라는 입장. 세 번째 입장은 다시 戰國 시기부터 한나라까지 쓰였다는 시기에 대한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황제의 작품이라는 주장

황제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한 사람은 高保衡, 馬蒔, 杭世駿, 顧從德, 高承 등을 들 수 있다.

高保衡, 林億 등은 「新校正序文」에서 다음과 같

‘辰’을 말한다. ‘哉生魄’은 ‘달의 검은 부분이 처음 생겼다’는 뜻으로 음력 16일을 말한다.

16) ‘關逢’은 古甲子로 ‘甲’을 말하고, ‘執徐’ 역시 古甲子로

이 말하였다. “과거에 黃帝가 다스릴 때에 이치로써 천하를 다스리니 明堂에 앉아서 八極을 두루 살피고 五常을 세웠다. 그때에 사람의 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負陰而抱陽하고 食味而被色하며 밖으로는 한서의 차이가 있고 안으로는 희노가 넘나들어 병들고 불행하게 된다. 이에 오복을 거둬들이 백성들에게 퍼뜨리고자 하여 기백과 위로는 천기를 궁구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다하며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고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여 서로 난해한 것들을 묻고 답하여 법을 내려서 만세를 복되게 하였다. 이에 뇌공 등이 배우고 전하여 內經이 지어졌다. 역대에 걸쳐 보배롭게 여겨 아직도 실추되지 않고 있다.”<sup>17)</sup>

그들은 『內經』의 전편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황제의 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馬蒔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에서 “『素問』은 황제와 기백, 귀유구, 백고, 소사, 소유, 뇌공 등 여섯 신하가 평소에 묻고 답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本紀』에서 “기백에게 의지해서 『內經』이 지어졌다.”고 말한 것이 이 책이다.”<sup>18)</sup>라고 하였다. 그 역시 『素問』이 황제의 글임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杭世駿은 『質疑』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李珠가 물었다. “황제가 기백에게 자문하여 『內經』을 지었다 하는데 지금의 內經이 과연 당시의 책입니까? 아니면 후세 사람이 쓴 책입니까?” 답하기를 “『內經』은 유향이 『七錄』을 편찬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진나라에서 시서를 분서할 때 『內經』은 방술서라고 여겨서 남겨두었다. 그 책이 심오하고 정밀해서 후세 사람들이 假託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하였다.”<sup>19)</sup>

그는 그 내용이 심오함을 들어 황제의 글임을 인정하고 있다. 후세 사람들이 假託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顧從德은 『重雕素問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 『素問』이 황제의 글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 전하는 『內經素問』 즉 황제의 맥서는 진월인, 양경, 순우의 등 여로 장로들에 의해 널리 펼쳐진 것이다. 그 문장이 비록 한나라 사람의 것과 유사하나 그 뜻은 먼 데부터 온 것이다.”<sup>20)</sup>

또한, 高承 역시 『事物紀原』에서 “황보밀이 『帝王世紀』에서 말하기를 “황제가 뇌공과 기백에게 명하여 구침을 제작케 하고 내외경을 짓게 하여 『素問』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1)</sup>고 하여 『素問』이 황제의 글임을 밝히고 있다.

이 다섯 가지 경우는 내용의 심오함을 들어 『素問』의 내용이 황제의 글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황제의 작품이나 근본을 잃게 되었다’는 주장

沈作喆은 『寓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內經素問』은 황제의 글이 남겨진 것이다. 학자가 그 책을 익히지 않으면 의업은 한 재주가 될 뿐이고 천지인의 이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지언과 묘도가 담겨 있으나 문자가 잘못되고 빠지고 바뀌어 있어 그 본경을 잃어버렸다.”<sup>22)</sup>

그는 『素問』이 황제의 글은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세 사람들이 글자를 바꾸거나 잘못 집어넣어 그 근본을 잃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7)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 16. “在昔黃帝之御極也 以理身緒餘治天下 坐於明堂之上 臨觀八極 考建五常 以謂人之生也 負陰而抱陽 食味而被色 外有寒暑之相盪 內有喜怒之交侵 天昏札瘥 國家代有 將欲斂時五福 以敷錫厥庶民 乃與岐伯上窮天紀 下極地理 遠取諸物 近取諸身 更相問難 垂法以福萬歲 於是雷公之倫 授業傳之 而內經作矣 歷代寶之 未有失墜”

18)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 1. “素問者 黃帝與岐伯鬼與區伯高少師少俞雷公六臣平素問答之書 卽本紀所謂咨於岐伯而作內經者 是也”

1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11. “李珠問 黃帝咨於岐伯作內經 今之內經 果是當年之書歟 抑後人所記歟 答云 內經劉向編七錄時 已有之 秦焚詩書 內經想以方術得存 其書深奧精密 非後人所能僞託”

2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6. “今世所傳內經素問 卽黃帝之脈書 廣衍于秦越人 陽慶 淳于意 諸長老 其文遂似漢人語 而旨意所從來遠矣”

2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4. “皇甫謐帝王世紀云 黃帝命雷公岐伯 教制九鍼 著內外經素問之書咸出焉”

2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3. “內經素問 黃帝之遺書也 學者不習其讀 以爲醫之一藝耳 殊不知天地人理 皆至言妙道存焉 文字譌脫錯亂 失其本經”

후대의 假託이라는 주장

후대의 假託이라는 주장은 그 시기에 따라 여러 입장으로 나뉜다. 周秦시대 작품이라는 설, 周漢시대 작품이라는 설, 戰國시대 작품이라는 설, 秦漢시대 작품이라는 설 등 제각각이다. 그 각각의 입장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周秦時代 작품이다

周秦시대 작품임을 주장한 사람은 胡應麟과 于敏中을 들 수 있다.

胡應麟은 『少室山房筆叢』卷三「經籍會通·三」에서 “의방 등의 책에 기백과 황제를 칭하는 것이 있는데 문자가 옛스럽고 말도 현묘하다. 그러나 周秦시대의 상사철인의 작품일 뿐이다. 그 무리들이 세상을 놀래키려고 황제와 기백을 갖다 붙였을 뿐이다.”<sup>23)</sup>라고 말하여 周秦시대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少室山房筆叢』卷三十二「四部正訛·下」에서 “『素問』은 정미롭고 심오하며 『음부경』은 기이하면서도 오묘하다. 비록 황제의 글이 아니지만 진나라 이후의 글도 아니다.”<sup>24)</sup>라고 하여 역시 周秦시대의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于敏中은 『四庫全書簡明目錄』「子部五·醫家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제소문 24권은 원본에 빠진 것이 많은 것을 왕빙이 음양대론을 찾아내 보충하였다. 그 책이 상고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럴 리 없다. 그러나 또한 周秦 당시의 사람들이 예전에 들었던 것을 전술하고 죽백에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인 삼재를 관통하고 모든 변화를 포괄하였다. 비록 장자화, 이동원, 유하간, 주단계가 종신토록 찬양하고 우러렀으나 그 깊은 뜻을 다할 수는 없었다.”<sup>25)</sup>

두 사람은 『素問』의 내용이 심오하고 정미로우

며, 그 뜻이 매우 깊어 많은 의가들이 그 뜻을 다 밝히고자 하여도 밝힐 수 없었다고 하면서 周秦시대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周漢時代 작품이다

司馬光은 『傳家集』「書啓與范景仁第四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素問』이 진짜 황제의 글이라고 하는데 그럴 리 없다.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종일 명당에 앉아서 기백과 의약침구를 논했겠는가. 이것은 周漢 무렵의 의자들이 假託한 것이다.”<sup>26)</sup>

그는 세상을 다스리느라 바쁜 황제가 의약침구를 논의하기 위해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겨 『素問』이 周漢시대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戰國時代 작품이다

戰國시대 작품임을 주장한 사람으로 邵雍, 程頤, 桑悅, 方以智, 魏荔彤, 崔述 등을 들 수 있다.

邵雍은 『皇極經世書』「心學第十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素問』과 『음부경』은 칠국시대(戰國시대) 작품이다.”<sup>27)</sup>

程頤는 『河南二程全書』第十五「伊川先生語一·入關語錄」에서 “『素問』은 戰國시대 말기에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 기상을 보면 알 수 있다.”<sup>28)</sup>고 말하고, 또한 같은 책 第十九「伊川先生語五·楊遵道錄」에서 “『素問』의 문자나 기상을 보건대 이 책은 戰國시대 사람의 작품이지 이른바 三墳이라고 불리는 책은 아니다.”<sup>29)</sup>라고 말하여 그 기상과 문자로 보아 『素問』이 戰國시대 말기의 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3)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9. “醫方等錄 雖亦稱述岐黃 然文字古奧 語致玄渺 蓋周秦之際 上士哲人之作 其徒欲以驚世 竊附黃岐耳”

2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9. “素問精深 陰符奇奧 雖非軒后 非秦後書”

25) 于敏中, 四庫全書簡明目錄, 子部五·醫家類, 木版本. “黃帝素問二十四卷……原本殘闕 氷探陰陽大論以補之 其書云出上古 固未必然 然亦必周秦間人 傳述舊聞 著之竹帛 故通貫三才 包括萬變 雖張李劉朱諸人 終身鑽仰 竟無能罄其蘊奧焉”

2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2. “謂素問爲眞黃帝之書 則恐未可 黃帝亦治天下 豈可終日坐明堂 但與岐伯論醫藥鍼灸耶 此周漢之間醫者 依託以起重耳”

27) 邵雍, 皇極經世書, 心學第十二, 木版本. “素問陰符 七國時書也”

28) 程頤, 河南二程全書 第十五, 伊川先生語一·入關語錄, 木版本. “素問之書 必出於戰國之末 觀其氣象知之”

29) 程頤, 河南二程全書 第十九, 伊川先生語五·楊遵道錄, 木版本. “觀素問文字氣象 只是戰國時人作 謂之三墳書則非也”

桑悅은 『素問鈔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素問』은 선진 戰國시대의 책이지 황제와 기백이 쓴 글이 아니다. 상고, 중고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한 증거이다. 글들의 뜻을 감상해 보면 광대해서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다.”<sup>30)</sup>

그는 글의 내용이 광대해서 그 뜻이 깊지만, ‘상고’, ‘중고’ 등의 말을 쓴 것으로 보아 戰國 시대의 작품으로 판단하고 있다.

方以智는 『通雅』에서 “그 일을 지켜 익숙하게 하고 넓혔으니 『靈樞』『素問』이 그것이다. 다 주나라 말엽에 쓰여졌다.”<sup>31)</sup>고 하여 戰國 시대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魏荔彤은 『傷寒論本義』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제와 기백의 글은 春秋戰國시대 사람이 쓴 것을 상고에 假託했다. 문장이 순조롭고 뜻이 윤택하며 편장이 연관이 있어서 『예경』을 대하듯이 엄숙하게 읽어야 한다.”<sup>32)</sup>

그는 그 내용이 매우 훌륭하지만 황제가 쓴 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崔述은 『補上古考信錄』 「卷上·黃帝氏」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 전하는 『素問』은 황제와 기백이 문답한 것을 싣고 있다. 『靈樞』와 『음부경』 역시 황제가 지은 것이라 말한다. 戰國시대의 제자 중에는 황제가 저술한 것이라는 책들이 많다. 내가 살펴보면, 황제 시대에 사책이 없었는데 어떻게 후세에 전해졌겠는가. 또한 그 말들이 천박하고 지근해서 戰國秦漢시대 사람들이 찬술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그는 당시에 사책이 없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천박함을 戰國시대 저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을 살펴보면, 『素問』의 내용이 심오하고 방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桑悅, 方以智, 魏荔彤 등의 입장과 그 내용이 천박하다는 崔述의 입장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또한, 戰國시대의 작품임을 주장하는 근거도 다양함을 볼 수 있다. 程頤는 기상과 문자를 들어 戰國시대 작품임을 주장하고 있고, 桑悅은 ‘상고’, ‘중고’ 등 당시에 쓸 수 없는 문자를 쓰고 있는 점을 들어, 崔述은 황제 당시에 사책이 없었으니 전해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戰國시대 작품임을 주장하고 있다.

#### 秦漢時代 작품이다

秦漢시대 작품임을 주장한 사람은 王炎, 姚際恒, 竇萍, 方孝孺, 郎瑛, 祝文彥 등을 들 수 있다.

王炎은 『運氣說』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素問』은 선진시대 고서이다. 진나라 분서갱유 이전 春秋戰國시대 작품이다. 의화나 의완, 진월인 같은 사람들이 비록 의술에는 정밀하다 해도 천지음양 오행을 사용하는 것이 이처럼 정밀할 수는 없다. 그 내용이 모두 황제와 기백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뜻 또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다.”<sup>34)</sup>

그는 그 내용이 정밀한 것으로 보아 황제의 글은 아니지만 선진 시대 이전의 고서로 판단하고 있다.

姚際恒은 『古今僞書考』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펴보건대 그 내용 안에 黔首라는 말이 나오고, 『藏氣法時論』에 야반, 평단, 일출, 일중, 일질, 하포라는 말을 하여 十二지지를 말하지 않은 것은 진나라 사람이 지은 부분이다. 또한 갑자라고 하고 인시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은 한나라 이후 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 옛 것과 근래의 것이 나뉘어져 있으니 한마디 말하기는 힘들다.”<sup>35)</sup>

30)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6. “素問 乃先秦戰國之書 非黃岐手筆 其稱上古中古 亦一左證 玩其詞意 汪洋浩汗 無所不包”

3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10. “守其業而浸廣之 靈樞素問也 皆周末筆”

32)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11. “軒岐之書 類春秋戰國人所爲 而託於上古 文順義澤 篇章聯貫 讀之儼如禮經也”

33) 崔述, 補上古考信錄, 卷上·黃帝氏, 木版本. “世所傳素問一書 載黃帝與岐伯問答之言 而靈樞陰符經 或亦稱爲黃帝所作 至戰國諸子書 述黃帝者尤衆 余按 黃帝之時 尚無史冊 安得有書傳於後世 且其語多淺近 顯爲戰國秦漢間人所撰”

34)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3. “夫素問乃先秦古書 雖未必皆黃帝岐伯之言 然秦火以前 春秋戰國之際 有如和緩秦越人輩 雖甚精於醫 其察天地陰陽五行之用 未能若是精密也 則其言雖不盡出於黃帝岐伯 其旨亦必有所從受矣”

35)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12-13. “予按其 中言黔首 又藏氣法時 曰夜半 曰平旦 曰日出 曰日中 曰日昃 曰下晡 不言十二支 當時秦人作 又

그는 내용 중에 나오는 단어가 언제 사용된 언어 인지를 고증하여 『素問』의 저작 시기가 秦漢대임을 밝히고 있다.

竇萍은 『酒譜』에서 “『內經』18권은 천지 생육을 말하고, 사람의 요수를 다루고 있으니 三墳의 글이라 믿을 만하다. 그러나 그 문장을 살펴보면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은 육국 秦漢 무렵임을 알 수 있다.”<sup>36)</sup>라고 말하여 문장을 살펴보아 책의 저작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秦漢 무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方孝孺는 『遜志齋集』卷四 「讀三墳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상에 위서는 많다. 가령 『內經』은 황제를 사칭하고, 『금충서』는 주를 사칭하는데 모두 戰國秦漢시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글이 비록 위서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에 옛 것에 가까운 것이 있어 가히 취할만 하다.”<sup>37)</sup>

그는 『內經』이 秦漢시대의 작품이지만 그 내용이 취할 만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郎瑛은 『七修類稿』에서 “『素問』은 상고의 글이 아니다. (중략) 송나라 섭길보가 말하길 삼대 이전의 글도 아니고 동도 이후의 글도 아니니, 단연코 회남왕의 작품이다 (중략) 내가 보기에 황제와 기백의 문답은 회남왕이 지은 것이다.”<sup>38)</sup>라고 하여 『素問』을 회남왕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祝文彦은 『慶符堂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內經素問』은 후인들이 말하기를 기백과 황제의 글이라고 하는데, 맥법과 병증을 논한 부분을 보면 성인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고, 사의가 고아하고 소박해서 고인이 남긴 것이 아님이 없다. 그러나 내가 살펴보건대 진나라 이후의 글이

확실하고 모두가 기백과 황제의 글인 것은 아니다. 화타나 편작의 신의들이 있을 당시에는 분명히 기백과 황제의 진짜 요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후에 기사회생하는 의술이 드러났을 것이다. 곧 기백과 황제의 몇 가지 말이 후세에 남겨졌는데 후대 사람들이 모아 붙여 이 책을 만든 것이지 실제로 황제와 기백이 쓴 것은 아니다.”<sup>39)</sup>

그는 『素問』이 황제의 뜻이 일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진나라 이후에 쓰여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王炎, 竇萍, 方孝孺, 祝文彦 등은 『素問』의 내용이 정밀하여 황제의 글은 아니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사용된 문장이나 단어 등을 들어 『素問』이 秦漢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李圭峻의 견해

그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素問』의 저작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첫째는 先賢, 즉 孔子의 판단이다. 孔子는 황제가 생사의 원인을 통달하고 있고, 초목의 맛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孔子가 근거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 없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얘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판단의 결과가 『素問』이다. 伏羲, 神農, 黃帝의 三墳書가 존재한다고 孔安國이 얘기했고, 孔子가 황제에 대하여 얘기했으니 三墳서 중 황제의 저작은 전해져 내려오는 『素問』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조선의 理와 氣를 분리하고 心과 性を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孔子와 孟子의 말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음을 들고 있다<sup>40)</sup>.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철저히 孔孟

有言歲甲子 言寅時 則又漢後人所作 故其中所言 有古近之分 未可一概論”

3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3. “內經十八卷 言天地生育 人之夭壽繫焉 信三墳之書也 然考其文章 知卒成是書者 六國秦漢之際也”

37)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5. “世之偽書衆矣 如內經稱黃帝 汲冢書稱周 皆出於戰國秦漢之人 故其書雖偽 而其文近古 有可取者”

38)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7. “素問文非上古 …… 宋聶吉甫云 既非三代以前文 又非東都以後語 斷然以爲淮南王之作 …… 予故以爲岐黃問答而淮南文成之者耳”

3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p. 12. “內經素問 後人傳以爲岐黃之書也 其論脈法病證 未必不有合于聖人之意 詞義古朴 未必不有得古人之遺 然自余觀之 確乎爲秦以後書 而非盡岐伯黃帝之言也 當時和扁諸神醫必有傳于岐黃真諦 而後能彰起死回生之術 則岐黃之微言 宜有一二存乎後世者 而後人附會之 以成是書 實非岐黃所著也”

40) 李圭峻, 石谷心書, 原證, 筆寫本. “夫浩然之氣 心氣也



의 말을 근거로 하는 그가 『素問』의 저작자를 판단하는데 孔子의 말을 근거로 삼지 않을 리 없다.

당시 조선의 주류를 이루던 성리학을 孔子와 孟子의 말을 근거로 단호하게 비판하고 유교 경전을 刪正한 그가 『素問』의 저작자를 따지면서 역시 주류를 이루던 戰國시대 저작설에 대해 孔子의 말을 근거로 과감하게 비판하면서 『素問』이 황제의 글임을 주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자신의 판단이다. 그가 『素問』을 읽어 보니 그 내용이 심오하고 정밀하여 천지음양의 근원에서 사생유명의 연고와 곤충초목의 은미함까지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성현의 생이지지하는 능력이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하고 있다.

그는 유학을 공부하면서 국내의 여러 선비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의심하고 어려워하던 것들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이후 스승 없이 홀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내었고 여러 경전을 刪正하였다<sup>41)</sup>.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공부하여 朱子 이후 성리학의 근간을 이루던 여러 서책들에 대해 과감히 刪正하였다.

이런 그가 『素問』을 읽고 그 내용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모든 이치를 담고 있다고 여겼다면, 성인의 글로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인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면 과감히 주장하는 데다 孔子의 말과 孔安國의 말에서 그 근거를 얻었다면 『素問』의 저작자가 황제라고 그가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素問』의 전 내용이 황제의 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은주 삼대를 거치면서 보

태지고 장황해져 앞뒤 모순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한나라 이후로는 착간에 와전도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왕빙이 『素問』을 정리하고, 고보형 등이 새롭게 교정하면서 도리어 근본이 가려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의 의견은 沈作喆의 의견과 가장 일치한다.

황제의 글이나 세상에 전해져 오면서 그 내용에 많은 부분이 와전된 『素問』이기에 그는 『素問大要』를 편찬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성리학자들이 유교 경전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펴 도리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면서 유교 경전을 刪正했듯이, 의학자들이 『素問』을 보지 않거나 『素問』을 근거로 틀린 주장하여 많은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의학의 경전인 『素問』 역시 刪正한 것이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素問大要』이다.

### Ⅲ. 결 론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역대의 제가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素問』의 저작자에 대해 황제다 아니냐를 논하였다.

이에 李圭峻은 두 가지 근거를 들어 『素問』의 저작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는 황제가 생사의 원인을 통달하고 있고, 초목의 맛을 알고 있다는 공자의 말과 복희, 신농, 황제의 三墳書가 존재한다고 孔安國이 얘기한 것을 근거로 三墳書 중 황제의 저작은 전해져 내려오는 『素問』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한다. 그는 無師獨學하여 과감하게 유교의 경전을 刪正할 만큼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런 그가 『素問』을 읽어 보니 그 내용이 심오하고 정밀하여 천지음양의 근원에서 사생유명의 연고와 곤충초목의 은미함까지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성현이 아니라면 이런 글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도 『素問』의 전 내용이 황제의 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은주 삼대를 거치면서 보태지고 장황해져 앞뒤 모순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한나라 이후로는 착간에 와전도 되었다

心性一物 理氣合體 今人以心爲氣 以性爲理 理氣二之 認心爲賊 殊異乎孔孟之言也”

41) 曹圭喆, 石谷李圭峻墓碣銘. “遂歷訪國中老師宿儒諸賢 問其所嘗疑難于中者 而終無得焉 則以詩爲歎有 千里求師計 又差之句 於是潛心研鑽 筆之於書 易則有圖書解 禮則有訂義 詩書則有演義 春秋則有讀法 皆發明前人之所未發”

고 판단하였다. 특히 왕빙이 『素問』을 정리하고, 고보형 등이 새롭게 교정하면서 도리어 근본이 가려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의학자들이 『素問』을 보지 않거나 『素問』을 근거로 틀린 주장하여 많은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교의 경전을 刪正한 것처럼 의학의 경전인 『素問』을 刪正한 것이 『素問大要』이다.

#### IV. 참고문헌

1. 권오민, 李圭峻의 心氣哲學과 扶陽論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5.
2. 김두중,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66.
3. 김적, 이규준의 생애와 학설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79.
4. 김중환, 『素問大要』의 著作動機와 石谷醫學의 得失,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17 No.4, 2004.
5. \_\_\_\_\_, 李圭峻의 『素問大要』에 나타난 獨創性,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5 No.-, 1991.
6.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臺北, 平凡出版社, 1975.
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서울, 大星文化社, 1994.
8.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上,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9.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0. 邵雍, 皇極經世書, 木版本.
11. 揚雄 著, 李軌 註, 揚子法言, 木版本.
12. 王琦, 素問今釋, 貴州, 人民出版社, 1981.
13. 王冰,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4. 翁백건 저, 백정의 최일범 공역, 황제내경개론, 서울, 논장, 1990.
15. 于敏中, 四庫全書簡明目錄, 子部五·醫家類, 木版本.
16. 李慶雨, 黃帝內經素問1, 서울, 여강출판사, 1994.
17. \_\_\_\_\_, 黃帝內經素問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18. \_\_\_\_\_, 黃帝內經素問3, 서울, 여강출판사, 1999.
19. \_\_\_\_\_, 黃帝內經素問4, 서울, 여강출판사, 1998.
20. \_\_\_\_\_, 黃帝內經素問5, 서울, 여강출판사, 1999.
21. \_\_\_\_\_, 黃帝內經靈樞1, 서울, 여강출판사, 2001.
22. 李圭峻, 石谷心書, 筆寫本.
23. \_\_\_\_\_, 素問大要, 서울, 大星醫學社, 1999.
24. 張介賓,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1998.
25. 張志聰, 素問集註, 서울, 大星文化社, 1994.
26. 程頤, 河南二程全書, 木版本.
27. 曹圭喆, 石谷李圭峻墓碣銘.
28. 崔述, 補上古考信錄, 木版本.
29.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扶陽論에 관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12 No.2, 1999.